

나의 유년 시절을 지배했던 것은 아버지의 단호하고 짧은 명령조 어투였다. 엄격했던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나고 자란 아버지는 집 안에서 말수가 적은 분이셨다. 어쩌다 입을 열 때면 그것은 청유나 대화가 아닌 늘 하나의 지시였다. “밥 가져와라”, “물 가져오너라”, “남자가 어디 감히 주방을 기웃거리느냐.” 아버지의 묵직한 권위는 곧 그 시절 남성의 미덕이었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서슬 퍼런 명령의 서법(書法)을 몸으로 익히며 자랐다.

사회생활 역시 다르지 않았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제조업 현장과 건설 관리직은 남성 호르몬이 거칠게 요동치는 밀림과도 같았다. 고함과 질책, 굵직한 추진력이 곧 능력으로 평가받던 세계. 그곳에서 ‘세심함’이나 ‘돌봄’ 같은 단어는 유약함의 다른 이름이었고, 집안일이나 가사는 마땅히 집안에 있는 아내가 전담해야 하는 ‘여성들의 영역’이라 여겼다. 나 역시 퇴근길 문을 열고 들어서며 “밥은?” 이라는 두 글자로 하루의 피로를 가장의 권위 뒤에 숨기곤 했다.

변화는 오십을 훌쩍 넘긴 나이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주력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 새로 시작한 일은 한 보험회사 지점의 설계사였다. 낯선 명함을 들고 출근한 그 사무실은 구성원의 90퍼센트 이상이 여성 동료들이었다. 굵직한 목소리와 일방적인 지시가 통하던 이전 직장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첫 출근 날, 오십 대의 둔탁한 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서성이던 나에게 그 낯선 일터는 거대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다.

신입 설계사로서 내가 옆자리에서 목격한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전문성’이었다. 여성 동료들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객의 작은 표정 변화, 지난주에 흘려보낸 지나가는 말, 가족의 소소한 기념일과 건강 상태까지 섬세하게 기억하고 챙겼다. 고객이 앉을 상담 테이블의 온도를 살피고, 서류 한 장을 건넬 때도 상대가 보기 편한 각도로 정갈하게 놓아두었다.

처음에는 그 모든 행위가 그저 여성 특유의 ‘자잘한 수다’나 ‘잡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보듬는 고도의 정교한 기술이자, 관계를 지탱하는 훌륭한 노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과거 나의 직장에서 ‘일’이란 상형문자처럼 딱딱하고 거친 명령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일’은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응답하는 세밀한 ‘배려’였다.

처음 몇 달, 나는 이전 직장의 방식대로 상품 설명서를 들이밀며 실적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계약은 좀처럼 성사되지 않았다. “남자가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 쓰나”라는 굴레가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옆자리 동료들을 어깨너머로 지켜보며, 나도 하나씩 그들의 방식을 따라 해보기 시작했다.

고객이 읽기 쉽게 인덱스 스티커를 번호 순서대로 붙이는 법, 따뜻한 차를 내올 때 찻잔의 손잡이를 상대의 오른손 방향으로 돌려놓는 법, 비 오는 날 손님의 젖은 우산을 받아 정성껏 말려두는 법. 그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씩 따라 하며 내 안의 무딘 안테나가 비로소 고객을 향해 퍼지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계약도 조금씩 늘어갔다. 한 동료가 “팀장님도 이제 저희랑

비슷해지셨네요, 꼼꼼하고 다정해지셨어요” 라고 무심코 건넨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세심함과 배려, 꼼꼼함은 어느 한쪽 성별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별을 떠나 한 인간이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 기울이는 정직한 수고이자 기술이었던 것이다.

몸에 배기 시작한 작은 습관들은 마침내 내 삶의 가장 깊은 공간, 즉 거실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어느 날 퇴근 후, 평소처럼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밥 줘” 라 말하려던 순간, 내 입이 멈칫했다. 주방에서 지친 기색으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타들어 간 뒷모습이 비로소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표정을 살피던 그 ‘배려의 안테나’ 가 마침내 평생을 함께해 온 아내의 삶을 향해 작동한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내가 오늘 설거지랑 국은 끓일 테니, 당신은 가서 좀 쉬어.” 아내는 낯선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안도감이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 며칠은 서투른 손길에 국그릇을 엌지르기도 했지만, 그릇을 정갈하게 닦아 찬장에 넣는 동안 나는 그동안 아내가 홀로 짊어졌을 가사 노동의 무게를 비로소 손끝으로 체감했다. 집안일이란 누군가가 당연히 짊어져야 할 ‘여성의 짐’ 이 아니었다. 이 가정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공평하게 나누어 져야 할 책임이자 애정의 표현이었다.

나의 말투도 달라졌다. 아버지에게 배운 명령형 어투 대신 “같이 할까?”, “이건 어떻게 도와줄까?” 같은 청유형 언어가 입에 붙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내가 먼저 청소기를 돌리고 분리수거 봉투를 들었다. 어느 주말, 집에 들른 아들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네요” 라며 웃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물려받았던 명령조의 서법을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조용히 안도했다.

50대에 뒤늦게 들어선 낯선 일터는 나에게 삶의 새로운 서법을 가르쳐주었다. 가부장적 권위와 성역할이라는 틀에 갇혀 명령하는 법만 알았던 나에게, 타인을 살피고 공평하게 짐을 나누는 배려의 기술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양성평등이란 거창한 구호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던지고, 매일 마주하는 서로의 노고를 귀하게 여기며 일상의 작은 짐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지극히 솔직한 실천이다. 오늘 저녁, 나는 정성스레 수저를 놓으며 아내에게 다정한 안부를 건넨다. 오십 줄에 뒤늦게 배운 이 배려의 언어가, 우리 집 거실을 한층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채워가고 있다.